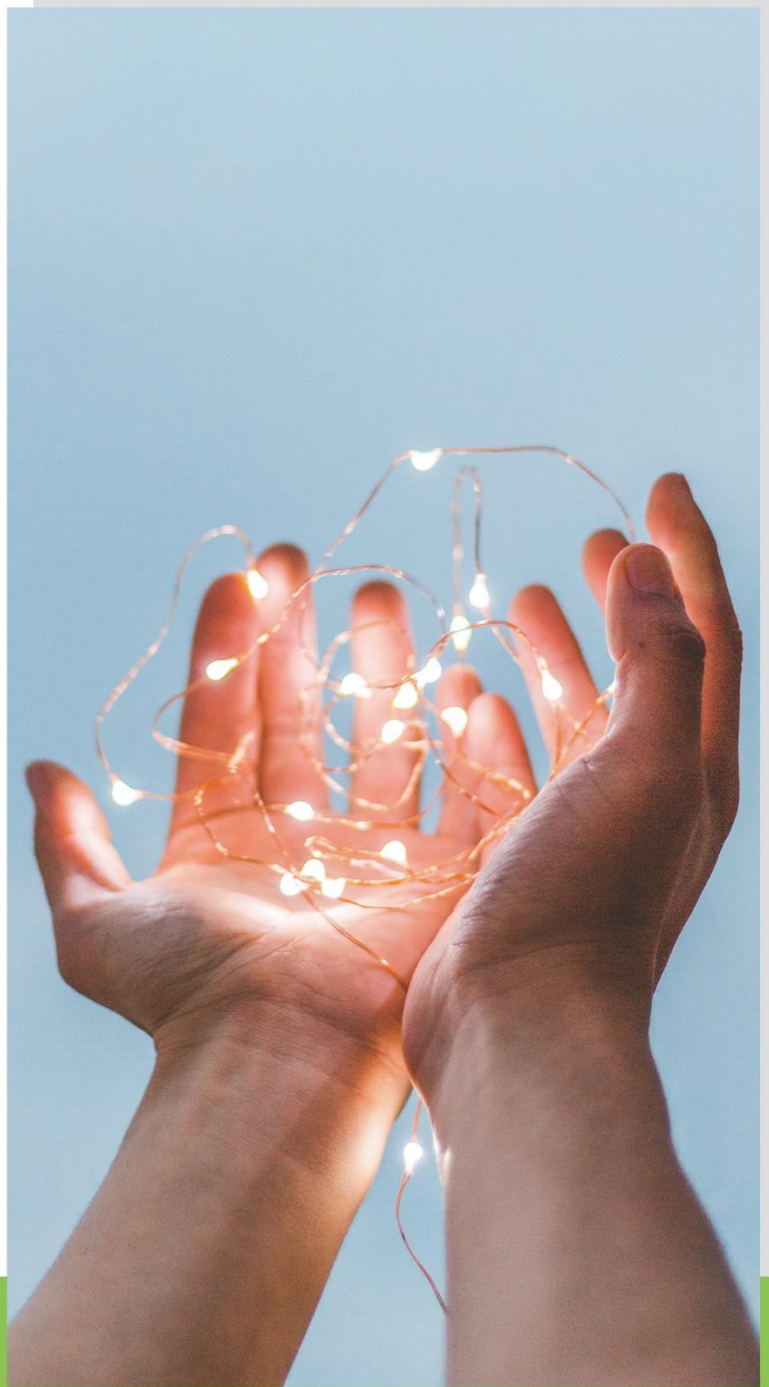




2019

Annual Report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개인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축시키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복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 인터서브 온 가족들의 평강을 빕니다!

지난 2019년을 정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을 묵묵히 걸어오신 사랑하는 인터서브 선교사들과 사역에 동참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넉넉한 열매의 은혜로 즐거워하신 분도 계시고 바닥을 치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가난한 심령에 심과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의 여정에는 늘 자기 정체성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끝까지 견지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함으로써 그 기반 위에 우리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열매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난 방법과 태도로 이룬 것이라면 제대로 된 미션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정체성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모습을 따르는 것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삶을 살아내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빌립보서 1:9-11 말씀을 옆에 두고 묵상하며 우리의 선교적 삶에서 동기와 방법과 태도 그리고 목표와 목적을 점검하곤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식과 모든 총명을 더하여 더 풍성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가장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진실하고 허물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인터서브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터서브 선교사와 모든 동역자님들 앞에 주어진 2020년이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김민철 이사장, 조샘 대표 드림

2019년 하이라이트

1 다양한 직업과 배경 17명의 신입선교사 허입

이는 최근 몇 년 중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파송 후보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동, 인도, 중국, 일본 등으로 다양합니다.

2 개인과 교회를 미션 "열" 하게 Life As Mission 스쿨의 성장

선교지로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선교적 삶을 돕는 8주간의 여정인 LAMS! 올 한해도 왕성히 진행되었습니다. 국내에서 10회, 해외 2곳에서 미션의 "열"을 연합으로 나누었습니다.

3 함께 돌보며 섬기는 멤버케어 리디아 컨퍼런스

6월 17일~ 21일, 제주도 캔싱턴 리조트에서 리디아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싱글 여성들은 안전한 공간대 안에서 회복과 위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임 이후 온라인을 통해 소식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장기 전략 사역 첫 텐트메이커 선교사 파송

텐트메이커 선교사로 헌신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훈련하는 일을 시작한 이래 의미 있는 첫발을 뒀습니다. 2019년 10월, 레이철 자매를 1호 청년 텐트메이커 파트너로 파송하였고, 현재 A 도시에서 현지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새로운 선교지 일본

2019년 인터서브 새로운 파송지로 일본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로 허입된 한 선교사 가정은 2020년 상반기로부터 약 1년간의 훈련을 거쳐 일본에 파송되는 인터서브 첫 파트너가 될 예정입니다.

2020년 목표

30

30세 청년 인터서브 공동체성의 성장

2020년은 인터서브코리아의 30주년입니다.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시기, 인터서브는 다양한 모임과 출판물을 통해서 그동안 실천해온 삶으로서의 선교를 확인하고 한국 교회와 나누며 공동체성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변화를 돕는 공동체 제자 훈련에서의 성장

전 세계와 한반도는 전에 없는 변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 이 시대 역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옆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다양한 삶과 모습으로 증거하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인터서브는 선교사들뿐 아니라 보통의 크리스천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도록 돕는 제자도의 이해와 나눔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함께 돌보며 섬기는 멤버케어 인터서빙 재정문화의 성장

선교사들의 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올해는 이들의 재정을 본격적으로 돕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을 시작하는 원년입니다. 또한 선교사들과 프렌즈들이 물질적으로 서로 돕는 문화에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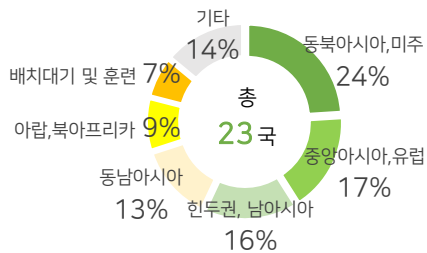
2019년 인터서브 사람들

인터서브 선교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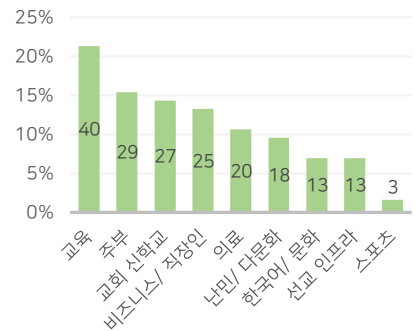
(2020년 1월 기준)

2019년 선교사 수	2018년 선교사 수
189 명 (107 units)	178 명 (101 units)
단기 선교사 수	선교사 자녀 수
6 명 (5 units)	193명

선교지 배치 현황



사역 현황



신입 선교사 현황

(2020년 1월 기준)

총 허입 선교사 수
17 명
유닛 수
8 유닛

4년간 신입선교사 허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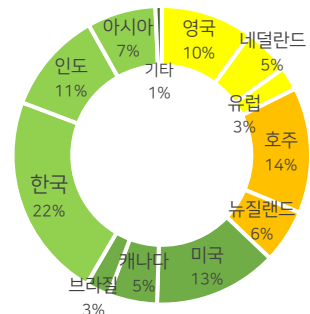


국제 인터서브 현황

(2020년 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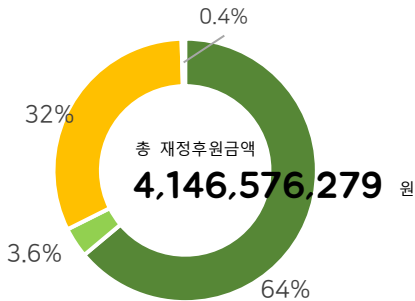
총 선교사 수
873 명
파송 국가
24 국
사역 국가
48 국

파송 국가 비율



2019년 인터서브 재정보고

선교사 재정 후원현황



● 생활비	2,649,727,900 원
● 교육비	153,965,088 원
● 지정 사역비	1,324,274,003 원
● 기타 사역비	18,609,288 원

선교사 유닛 당 후원금액

2019년 선교사 유닛 수

103 유닛 ▶ 가정 80 유닛, 싱글 23 유닛

유닛 당 월 생활후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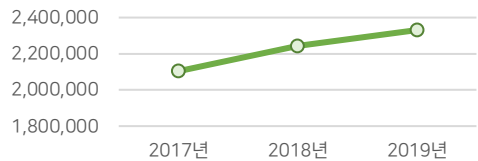
2,330,827 원 /월

유닛 당 연 후원금

27,969,920 원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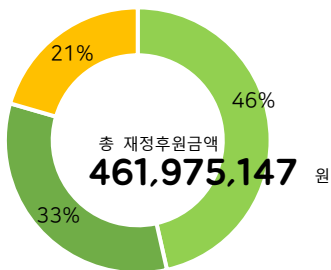
선교사 유닛 당 월 후원액 연도별 추이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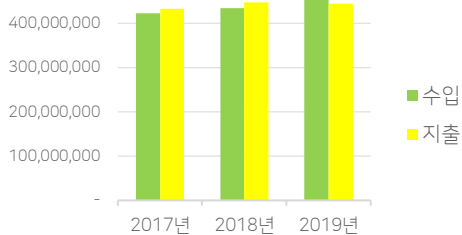
인터서브 본부 재정 현황

인터서브 본부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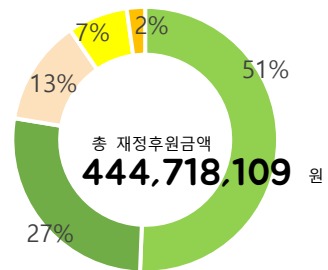


● 선교사 본부기여	214,654,096 원
● 프렌즈 정기후원	152,527,808 원
● 비정기후원 및 기타 수익	94,793,243 원

3년간 본부 재정수입과 지출 추이



인터서브 본부 지출



● 인건비	225,138,323 원
● 부서운영	119,965,044 원
● 사무실 관리운영	57,137,039 원
● 리더십팀	32,506,032 원
● 전략프로젝트 및 기타	9,971,671 원

밍글라바 (안녕하세요)

황금의 나라 미얀마 연방공화국은 135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약 5,500만명입니다. 이 중에 68%가 버마족이며 전체 국민의 90%가 불교도인 불교 성지 국가입니다.

윤페니 선교사

2014년 5월부터 미얀마 양곤에서 영어 교수 사역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전공인 패션 비즈니스를 살려 패션에 관심이 있는 청년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사역에 기대와 사명을 가지고 도전하는 윤페니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저는 미얀마 개혁 장로 신학교(MRPST)에서 영어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MRPST는 2007년 12월 한국인 선교사들의 연합(한국 기독교 교단 연합)으로 양곤시 밍글라돈 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저의 멘토이며 사랑하는 언니인 도서출판 토기장이 조대표님이 미얀마 사역을 보러 오셨습니다. MRPST 신학교에서 교수님들과 대화 중에 한 교수님이 갑자기 “대표님 저희 학교에 영어원서 3,000권을 기증해주세요”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던 일이라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미얀마로 책 3천 권을 보내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너무도 잘 아는 터라 개인적으로 친한 언니지만 차마 부탁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제안에 언니도 아무 주저함 없이 흔쾌히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 모두의 마음을 여신 것이었음을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영어원서 8천 권이 준비되는 것은 저희 신학교의 목표 사업인 ‘장래 현지인 이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가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언니는 ‘미얀마 3천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기도하며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미얀마 현지에서 신학교 교수님들도 뜨겁게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호주,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자부담으로 보낸 책들이 속속히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맛보는 놀랍고 가슴 떨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책이 들어오는 운송 과정에서 단 한 건도 세관이나 기타 어려움 없이 잘 도착하는 기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기존에 있던 책과 더불어 5천여 권이 필요했지만 애당초 목표치 보다 2천여권이 넘는 7,555권으로 감사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오랫동안 동역 해 온 미국 틴테일 출판사에서 모은 1천여 권은 감사함으로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 6개월 안에 이 사역이 완결되기를 기도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6개월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선교지에 나오니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께 그저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이대영, 서현정 선교사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간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경험하는 한국의 겨울이 조금 춥게 느껴지지만, 많은 분들의 배려와 사랑으로 잘 정착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저희들을 사용해 나가실지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현정은 지난 9월 시작한 간호행정 석사과정의 첫 번째 학기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전주와 서울을 오가는 쉽지 않은 여정이긴 했지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많은 것을 새롭게 알아가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대영은 지난 11월 말 열흘간 레바논에 다녀왔습니다. 2019년 2월에 레바논을 떠난 이후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최근 레바논이 정치,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겪으면서 사역을 진행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민뿐 아니라 그곳의 난민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이양 중인 사역은 현지 단체의 많은 노력 속에 점점 현지화에 가속이 붙은 것 같습니다. 현지 단체인 H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른 기부 단체의 지원을 받아 클리닉에 치과 및 안과 장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난민들을 위한 진료 활동을 하고 있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리더십이 바뀌고 서로가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상처가 아닌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좋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대영은 10월 1일부터 예수병원에서 국제진료소 소장과 외과 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늘 사역 중에 함께 동역해 준 예수병원은 저희들에게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고향에 다시 돌아온 듯하여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수술과 환자 진료에 적응해 나가면서 국제진료소를 통한 외국인 진료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몽골에서 간암이 재발한 환자가 연결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몽골의 아가페 병원과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유학생들과 외국인 진료를 통해 낯선 한국 땅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양한 선교지에 서 의료 연수를 위해 예수병원을 찾는 젊은 의료인들을 대영이 잘 도와 선교지에 장기적으로 좋은 선교 자원들이 준비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병원에는 많은 다음 세대 선교 자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 우리가 가진 선교사로서의 경험을 나누면서 이들을 적절하게 가이드 해주고, 예수병원이 좋은 선교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것보다 다시 자기 문화에 돌아와 정착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몇 배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한국에 잘 적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대영, 서현정 선교사 가정은 2005년부터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의료사역을 통해 어려운 이들과 난민들을 섬겨왔습니다. 2019년부터는 한국에서 새로운 선교적 삶을 시작하는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experience
Life As Mission



Interserve.kr
031.778.7931